

8.7 Wednesday

영일대해수욕장



19:30 - 20:10 / **곽영일 퀸텟 & 위나(6인조)**

20:30 - 21:10 / **Hot Pepper Pasta(5인조)**

21:30 - 22:20 / **브리어나콜리쇼**

22:40 - 23:30 /

프렛공연

축제 첫 시작은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소통의 날'로 꾸며집니다. 사전 무료 홍보행사인 '프레 콘서트'가 7일 7시30분부터 영일대(북부)해수욕장에서 진행됩니다.

곽영일 퀸텟 앤 위나를 비롯해 기타리스트 찰리정이 이끄는 블루스 프로젝트, 브리어나 콜리쇼(Briana Cowlishaw), 핫 페퍼 파스타(Hot Pepper Pasta) 등 수준높은 아티스트들이 포항시민들과 먼저 마주합니다.

특히 마지막 무대를 꾸밀 호주 출신 미모의 재즈 보컬리스트 브리어나 콜리쇼는 몽트리 재즈 페스티벌에서 수상하며 호평을 받고 있는 뮤지션. 첫 정식 내한 공연에 앞서 영일대 해수욕장을 낭만의 물결로 꾸밀 예정입니다.

ABOUT FESTIVAL

재즈의 자유로움과 가장 격조 있게 어울리는 장소, 푸른 파도와 드넓은 해변의 정취가 가득한 칠포의 바다는 다시 한번 재즈와 하나되는 축제의 장을 펼친다. 2007년을 시작으로 어느덧 7년의 연륜을 더하게 된 칠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은 대한민국 재즈 페스티벌의 새로운 명소로, 포항과 경북을 대표하는 문화, 음악 축제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재즈, 여름 바다가 되다"라는 주제로 펼쳐질 2013 제 7회 칠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은 전년까지의 2-3일의 일정을 확대하여 5일간의 대장정 속에, 국내외 정상급 재즈 뮤지션과 대중음악 뮤지션의 참여로 뜨거운 음악의 향연, 축제의 한마당이 된다.

HISTORY

- 1회 / 2007. 7. 22 (일) 젊음과 낭만, 그리고 열광
- 2회 / 2008. 7. 26 (토) 재즈의 바다에 빠져보자
- 3회 / 2009. 8. 14 (금) 재즈의 자유로움이 한여름밤의 여유로움으로
- 4회 / 2010. 9. 24 (금) 여성재즈보컬리스트의 축제
- 5회 / 2011. 8. 19 (금) ~20 (토) 여덟가지 재즈 이틀간의 열정
- 6회 / 2012. 8. 17 (금) ~19 (일) 재즈, 여름바다로 가다

PROGRAM

8,8 Thu	19:30 - 20:10 /	곽영일 퀸텟앤위나(6인조)
	20:30 - 21:10 /	적우
	21:30 - 22:20 /	치에 아야도(일본)
	22:40 - 23:30 /	MC스나이퍼(6인조)
8,9 Fri	19:30 - 20:10 /	jay-Vee (6인조)
	20:30 - 21:10 /	말로
	21:30 - 22:20 /	자신타 (jay-Vee)
	22:40 - 23:30 /	김장훈
8,10 Sat	19:30 - 20:10 /	라벤타나/탱고무용(6인조, 무용2)
	20:30 - 21:10 /	찰리정블루스밴드(성기문)9인조
	21:30 - 22:20 /	브리어나콜리쇼(호주-5인조)
	22:40 - 23:30 /	강산애(6인조)
8,11 Sun	19:30 - 20:10 /	Hot Pepper Pasta(5인조)
	20:30 - 21:10 /	웅산
	21:30 - 22:20 /	자신타(jay-Vee)
	22:40 - 23:30 /	윈터플레이

INFORMATION

일정 2013년 8월 7(일)수 ~ 11(일)목 저녁 7시
장소 포항 칠포해수욕장 야외특설무대 (프렛공연 영일대해수욕장)
입장료 지정석 10,000(인터파크판매) 비지정석 5,000(티켓몬스터)
주최 경북일보
주관 칠포국제재즈페스티벌 조직위원회
후원 포항시 경상북도 대아고속해운
문의 문의전화 054. 289. 2215

CHILPO BEACH

포항 칠포해수욕장은 경북 포항시에서 북쪽으로 13km 거리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1977년 7월 7일 개장해 하루 10만명 수용할 수 있는 동해안 최대의 해수욕장이다. 백사장 길이 200m~300m의 너비로 4km 뻗어있고 백사장 면적은 4만평에 이른다.

MAP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197-33 T.261-5773
1. 대중교통 이용시
 •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칠포행 버스이용(50분소요)
2. 자가용 이용시
 • 포항C → 영일만항 도로 → 포항칠포해수욕장 특설무대



www.chilpojazz.com

제7회 칠포국제 재즈페스티벌

재즈 여름 바다가 되다

CHILPO
INTERNATIONAL
JAZZ FESTIVAL
2013. 8. 7~11, 7:30PM

지정좌석시행 [1만원]
인터파크 예약중

8.8 Thursday



8.9 Friday



8.10 Saturday



8.11 Sunday



19:30 - 20:10 / **곽영일 콰텟 & 위나(6인조)**
 20:30 - 21:10 / **적우**
 21:30 - 22:20 / **치에 아야도(일본)**
 22:40 - 23:30 / **MC스나이퍼**

19:30 - 20:10 / **jay-Vee(6인조)**
 20:30 - 21:10 / **말로**
 21:30 - 22:20 / **자신타(jay-Vee)**
 22:40 - 23:30 / **김장훈**

19:30 - 20:10 / **라벤타나 / 탱고무용**
 20:30 - 21:10 / **찰리정블루스밴드(9인조)**
 21:30 - 22:20 / **브리아나콜리쇼**
 22:40 - 23:30 / **강산에**

19:30 - 20:10 / **Hot Pepper Pasta(5인조)**
 20:30 - 21:10 / **웅산**
 21:30 - 22:20 / **자신타(jay-Vee)**
 22:40 - 23:30 / **윈터플레이**

After Hours- 김장훈, 강산에, 적우, MC 스나이퍼

재즈 페스티벌과 공존하는 다채로운 대중 음악의 시간 After Hours는 칠포 재즈 페스티벌만의 선물이자 전통이다. 올해에는 김장훈, 강산에, 적우, MC 스나이퍼가 칠포의 밤을 더욱 뜨겁게 달구어 줄 주인공들이다. 독도지킴이로 포항과 경북의 주민들에게는 더욱 각별한 지지를 얻고 있는 라이브의 황제 김장훈의 위풍당당함. 걸쭉하게 풀어낸 삶의 이야기 강산에의 진솔함, '나는 가수다'의 출연 이후 더욱 광범위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적우의 선희빛 매력. 힙합계의 음유시인 MC 스나이퍼의 폭발적 열정. 이들의 친숙하고 다채로운 음악의 빛깔은 2013년 칠포 국제 재즈 페스티벌에서 놓칠 수 없는, 특별한 선물이자 공감이다.

한국 재즈의 자존심 말로, 웅산, 윈터플레이, 그리고...

해마다 한국 재즈의 발전과 변화를 증언하고, 제시해온 칠포국제 재즈 페스티벌에서 2013년의 가장 뜨거운 관심은 한국 재즈 보컬의 자존심이라 칭할 수 있는 말로, 웅산, 그리고 윈터플레이의 무대이다. '한국적 재즈'라는 숙제를 드디어 풀어난 재즈 보컬리스트 말로가 펼쳐낼, 창조적인 무대에서는 한국 재즈 보컬의 진화와 성숙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다. 매력적인 보이스와 열정적인 창법으로 재즈 팬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웅산의 무대에서는 재즈와 블루스, 펑크, 소울 등 그녀의 드넓은 음악적 폭과 열정을 누릴 수 있다. 한류 재즈, 팝 재즈의 신조어를 만들어낸 윈터플레이는 최근 이주한-혜원의 2인 체제로 변화한 후, 3집 앨범 <Two Fabulous Fools>의 발표로, 재즈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기존의 히트곡과 신곡이 어우러진 윈터플레이의 무대에서는 파퓰러한 감성과 행복한 페스티벌의 감흥으로 가득할 것이다.

한국 재즈의 자존심 말로, 웅산, 윈터플레이, 그리고...

지난 7월 3집 앨범 <Orquesta Ventana>를 통해 탱고-재즈 밴드의 농염한 음악성을 확인시켜주었던 라벤타나는 특별히 탱고 무용가와의 협연을 준비한다. 재즈 기타리스트 찰리 정과 재즈 피아노, 오르간 주자 성기문이 주축이 된 블루스 프로젝트는 블루스, 소울, 펑크가 지닌 그루비한 리듬과 짜릿한 앙상블로 이열치열의 시원함을 선물할 것이다. 그밖에 자신타와 함께 협연하게 될 Jay Vee, 정통 재즈와 컨템포러리 재즈를 두루 소화해낸 곽영일 콰텟 & 위나, 달콤쌉쌀한 재즈의 맛을 시식하게 할 핫 페퍼 파스타의 무대에 서는 재즈가 지닌 풍부하고 다양한 표정을 경험케할, 유용한 기회이다.

자신타, 치에 아야도, 브리아나 콜리쇼

2013년 8월, 칠포의 밤바다에는 재즈 팬들이 기다려왔던, 세계적인 재즈 아티스트의 참여가 어김없이 이어진다. 싱가포르출신의 재즈 보컬리스트 자신타의 깊고 풍부한 음성, 우아한 비브라토는 오래전부터 오디오 애호가들이 레퍼런스 사운드 1호로 애용해왔던 마법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호소력 있는 창법, 풍부한 감정이 실린 목소리는 올해 칠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의 가장 설레이는 기다림이 될 것이다. 재즈 보컬리스트 겸 피아니스트 치에 아야도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 재즈의 자존심으로 불려왔던 작은 거인이다. 가녀린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폭발적인 가창력과 열정의 테크닉은 관객들의 눈과 귀를 고정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재즈 보컬리스트 브리아나 콜리쇼는 세계적인 재즈 페스티벌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 오디션에서 입상한 경력을 지닌, 미모와 재능을 겸비한 재즈디바이다. 컨템포러리한 스타일을 바탕으로 친근하고 다정한 재즈의 표정을 만날 수 있다.